

漢詩에서의 用事 활용 양상 연구

- 성공적인 用事の 요건에 대하여

구본현*

1. 서론
2. 창작 상황을 고려한 典故의 선택
3. 意境을 고려한 造語의 적절성
4. 該博의 과시와 難澁의 병폐
5. 결론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漢詩에 쓰이는 수사법 가운데 하나인 ‘用事’의 활용 양상과 그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다.¹⁾ 이미 존재하는 소재나 표현을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용사는 바람직한 수사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많았다. 예컨대 崔滋는 용사를 쓰면 새로운 뜻을 만들기 어렵다고 하였고²⁾ 皎然은 용사를 하지 않는 것이 詩格의 으뜸이라고 하였다.³⁾

그러나 한시는 매우 정형적인 문학 갈래이다. 성률에 따라 글자의 활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산문에 주로 쓰이는 助字나 僻字, 俗語 등도 기피의

*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전임강사

1) ‘용사’는 “뜻과 감정의 설득력과 호소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행 텍스트에 존재하는 사건, 지식(정보), 주장(의견), 형상화 방식 등을 인용하거나 변용하여 창작 텍스트의 일부로 삼는 창작 방법”이다. 참고, 「用事の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검토」,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2009, 165면 참조.

2) “大抵用事之難, 罕有新意. 唯假借爲用, 如有新意, 然失實.”(崔滋, 『補閑集』 卷下, 亞細亞文化社, 1972, 132면)

3) “詩有五格: 不用事第一; 作用事第二; 其有不用事而措意不高者, 黜入第二格. 直用事第三; 其中亦有不用事而格稍下, 貶居第三. 有事無事第四; 此於第三格中稍下, 故入第四. 有事無事, 情格俱下第五. 情格俱下, 有事無事可知也.”(唐 皎然, 『詩式』 권1)

대상이 되었다. 제약이 심하다보니 한시에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용사가 作詩의 도구로 활발하게 이용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용사는 소극적인 가치만을 지니는 수사법이 아니다.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용사가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수사법임을 알 수 있다. 수사법으로서 용사가 지니는 긍정적인 가치를 밝히려면 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매우 당연한 상식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많지 않았다.⁴⁾

본고에서는 용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창작의 상황과 해당 典故 사이의 긴밀성이다. 선택된 전고가 창작의 의도와 합리적으로 결부될 경우 훌륭한 용사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선택된 전고를 새롭게 造語하는 방식의 정교함이다. 용사를 하려면 창작하려는 텍스트의 문맥에 맞게 해당 전고의 출전에 보이는 語句를 변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고의 원래 의미가 훼손되거나 意境의 논리성이 깨지게 된다면 좋은 용사라 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용사가 활용된 부분이 작품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즉, 어느 부분에서 용사를 활용했는가, 또 얼마나 활용하였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⁵⁾

4) 개별 작품론이나 작가론에서 용사를 분석한 경우는 매우 많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하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용사의 방식을 유형별로 정리한 김성룡의 『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문학교육학』 제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255~292면)과 한시와 고전시가의 용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李鍾默의 「고전시가에서 用事와 點化의 미적 특질」(『韓國詩歌研究』 제3집, 韓國詩歌學會, 1998, 323~345면) 등이 참조가 된다.

5) '형상화 방식'을 인용하거나 변용한 경우를 '點化'라 하여 용사와 구분하기도 한다. 어떠한 전고를 어떻게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하게끔 해야 한다는 '換骨奪胎'나 '點鐵成金'은 점화의 경우에 거의 절대적인 원칙이 된다. 이와 달리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가져다 쓰는 경우에는 용사가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상화 방식'을 가져다 쓰는 용사, 즉 점화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鄭堯一, 「點化·蹈襲·換骨奪胎·點鐵成金の 概念 研究」, 『漢文教育研究』 제1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329~338면 참조.

2. 창작 상황을 고려한 典故의 선택

‘用事’의 ‘事’를 다른 말로 ‘典故’라 한다. ‘전고’는 ‘典範이 되는 故事’로서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지닌 사건·사실을 가리킨다.⁶⁾ 과거에 이미 가장 훌륭한 형태의 사회가 이룩되었으며, 점점 이러한 상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인식에 의해 과거의 특정 사건·사실이 전고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과거의 이상적인 사회 형태를 현실에 맞게 再構해야 한다는 당위적 역사 인식, 즉 尙古主義에 의해 전고가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⁷⁾

인간의 사고와 행위가 유사한 형태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하므로, 용사를 쓰려면 먼저 창작의 상황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전고를 선택해야 한다. 창작 상황 또한 하나의 사건·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구성하는 인물·사건·배경 등의 요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선택한 전고와 창작의 상황 사이에 합리적인 유사성이 많아야 ‘的實’, 즉 ‘적절하여 실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詩名은 ‘한 가락 짓대’에 뒤지지 않고

相業은 ‘책 절반’에 아직 남아 있네.

詩名不讓一聲笛, 相業猶存半部書.

朴啓賢(1524~1580)이 趙士秀(1502~1558)에게 올린 시인데, 落句로 전하기 때문에 자세한 창작 상황을 알 수는 없다. 조사수를 칭송하기 위해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수의 행적과 유사한 전고를 선택해낸 안목이 돋보여 “용사가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았다.⁸⁾

出句는 唐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趙嘏의 고사를 가져와 조사수의 詩才를

6) 典故는 원래 옛날부터 지켜온 禮, 制度, 法式 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후 내력과 출처가 있는 故事, 또는 詩文 등에 인용된 어휘나 문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7) 宋載邵, 『漢詩 用事の 比喩的 機能』, 『韓國漢文學研究』 제8집, 韓國漢文學會, 1985, 291~310면.

8) “朴灌園啓賢甫<上趙松岡>詩, 其一聯云(…)用事切當.”(權應仁, 『松溪漫錄』, 『大東野乘』 권 56)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灌園集』(권1)에도 落句만 실려 있으며, 『송계만록』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칭송한 구절이다. 趙嘏는 “몇 점 새벽별 아래 기러기가 변방을 가로지르는데, 한 가락 젓대소리에 사람이 누대에 기대었네”라는 詩句로 ‘趙倚樓’라는 별명을 얻은 인물이다.⁹⁾

對句는 조사수의 經世之才를 칭송한 것인데, 宋나라 재상인 趙普의 고사를 이용하였다. 趙普는 평생 읽은 것이 고작 『論語』에 불과하다는 놀림을 받았다. 宋太宗이 정말이냐고 묻자 趙普는 사실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천하를 평정한 宋太祖를 보필하느라 『논어』에서 배운 것의 절반을 썼는바, 이제 나머지 반은 태평을 이루고자 하는 폐하를 돕는 데 쓰겠다고 답하였다.¹⁰⁾

박계현이 수많은 시인과 재상 가운데 조하와 조보의 전고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의 성이 모두 趙氏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한 유사성만을 가지고 좋은 용사라 평가할 수는 없다. 보다 주목할 것은 조사수, 조하, 조보의 행적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이다.

조사수는 1542년(중종 37) 陳慰使로 明을 다녀오는 길에 ‘登樓’를 소재로 한 和答詩로 중국에까지 詩名을 떨친 바 있다.¹¹⁾ 또한 조사수는 재상 바로 아래 직급인 정2품 벼슬을 두루 거쳤다. 이조·호조·형조·공조의 판서를 거친 뒤 知中樞府事와 議政府 左參贊을 지냈던 것이다.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재상의 자리에 오르지는 못하였으나, 明宗이 조사수의 성품과 재주를 높이 평가하여 재상감이라 칭송한 것¹²⁾을 보면 전고의 선택이 매우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창작 상황과 유사하지 않은 전고를 쓰게 되면 의경이 어색해질 수밖에 없다. 다음은 전고의 선택에 실패한 경우이다.

- 9) “趙嘏『長安秋望』詩云: ‘殘星幾點隔橫塞, 長笛一聲人倚樓.’ 當時人誦詠之, 以爲佳作, 遂有趙倚樓之目.”(宋 葛立方, 『韻語陽秋』 권4)
- 10) “杜少陵詩云: ‘小兒學問止『論語』, 大兒結束隨商賈.’ 蓋以『論語』爲兒童之書也. 趙普再相, 人言: ‘普, 山東人, 所讀者止『論語』.’ 蓋亦少陵之說也. 太宗嘗以此語問普, 普略不隱, 對曰: ‘臣平生所知, 誠不出此. 昔以其半輔太祖定天下, 今欲以其半輔陛下致太平.’ 普之相業, 固未能無愧於『論語』, 而其言則天下之至言也. 朱文公曰: ‘某少時讀『論語』便知愛, 自後求一書似此者, 卒無有.’”(宋 羅大經, 『鶴林玉露·乙篇』 권1)
- 11) “嘉靖壬寅, 趙松岡以陳慰使, 回到山海關, 主事王應期, 以『晚晴登眺』, 『春日郊行』兩律詩, 送于松岡(…) 松岡即次韻答之(…) 主事覽曰: ‘眞佳作也. 使之生中國, 豈偶然哉?’”(魚叔權, 『稗官雜記』, 『詩話叢林』, 93면)
- 12) “左參贊趙士秀卒(…) 傳于政院曰: ‘左參贊, 清謹廉直, 有文華, 可用宰相而不意卒逝, 予用傷悼.’”(『明宗實錄』, 13년 10월 24일)

학 올라 탄 풍류는 동쪽 바다에 다하였고
 거위 가둔 글재주는 우리나라를 흔들었네.
 跨鶴風流窮左海, 籠鵝文彩擅東韓.¹³⁾

금강산을 유람한 李慶胤(1545~1611)이 金禔(1524~1593)의 그림과 李山海(1539~1609)의 시를 가지고 軸을 만들었는데,¹⁴⁾ 이에 대해 盧守愼(1515~1590)이 지은 칠언율시의 頸聯이다. 이경윤의 풍류와 이산해의 글재주를 칭송한 구절인데, 出句는 이경윤의 封號인 ‘鶴林’에서 연상하여 王子喬의 고사¹⁵⁾를 취하였고 對句는 이산해의 호 ‘鵝溪’에서 연상하여 王羲之의 고사¹⁶⁾를 취하였다. ‘王’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전고들을 선택함으로써 工對를 의도한 것이다.

금강산 유람은 대개 학을 타고 그 일대를 노닌 四仙의 자취를 좇는 것이므로, 이경윤의 풍류를 왕자교의 仙迹에 견준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그런데 李晬光은, 對句의 ‘籠鵝’라는 표현이 斷章取義한 것이며 ‘籠鵝文彩’라는 표현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하였다.¹⁷⁾ 이는 造語가 작위적이라는 비판이지만,¹⁸⁾ 전고의 선택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어 보인다.

『道德經』을 써주고 그 대가로 거위를 얻었다는 것이 왕희지 고사의 핵심이다. 이산해가 직접 그림 위에 시를 써주었는지는 몰라도 왕희지는 글씨만 써주었을 뿐 글을 짓지는 않았다. 또한 시를 지어준 답례로 이산해가 무언가를

13) “昔上毗盧覽衆山, 今從摩詰認孱巒. 屯雲古檜陰陰洞, 落日危橋淺淺灣. 跨鶴風流窮左海, 籠鵝文彩擅東韓. 可憐嶺外稀年客, 贏得城中滿袖漣.”(盧守愼, 「題鶴林守遊金剛軸—金禔畫山, 鵝溪題詩」, 『蘇齋集』(『한국문집총간』 35) 권6, 196a면) 이하 ‘한국문집총간’은 ‘총간’으로 약칭한다.

14) 『芝峯類說』에는 이경윤이 그림을 그리고 이산해가 그 위에 시를 썼다고 하였으나, 이경윤의 그림 솜씨에 대한 칭송이 없는 것으로 보아 『蘇齋集』의 기록이 옳은 듯하다.

15) “王子喬者, 周靈王太子晉也. 好吹笙, 作鳳凰鳴. 遊伊、洛之間, 道士浮丘公接以上嵩高山. 三十餘年後, 求之於山上, 見桓良曰: ‘告我家: 七月七日待我於緱氏山巔.’ 至時果乘白鶴駐山頭, 望之不得. 舉手謝時人, 數日而去.”(漢 劉向, 『列仙傳·王子喬』)

16) “又山陰有一道士, 養好鵝. 羲之往觀焉, 意甚悅, 固求市之. 道士云: ‘爲寫『道德經』, 當舉群相贈耳.’ 羲之欣然寫畢, 籠鵝而歸, 甚以爲樂.”(『晉書·王羲之傳』 권80)

17) “宗室鶴林正慶胤所畫金剛山軸, 李鵝溪山海題其上. 盧蘇齋有詩曰(…)人多膾炙. 上句指鶴林, 下句指鵝溪. 然‘籠鵝’二字, 斷章取義, 而謂之‘籠鵝文彩’, 則語句恐未妥.”(李晬光, 『芝峯類說·文章部二·詩評』 권9)

18) 李鍾默,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325면.

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창작의 상황과 긴밀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시의 전고 선택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작품 전체의 의미와 미감에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용사를 이용하기도 한다.新意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분명 긍정적인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창작의 상황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전고를 선택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다음은 동일한 상황에서 유사한 전고를 사용하였으나 그 결과가 相異한 예이다.

① 蘇軾이 떠난 뒤로 진정한 붓이 없더니
文同이 죽은 뒤로 이 사람이 있구나.
子瞻去後無眞筆, 與可亡來有此人.

② 정신은 三生の習氣를 지닌 蘇軾을 옮겨놓았고
기운은 만 척 길이의 文同을 거꾸러뜨렸네.
神移蘇老三生習, 勢倒文翁萬尺長.

①은 申潛이 그린 墨竹에 대해 申光漢이 읊은 시이고 ②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鄭士龍이 읊은 시이다.¹⁹⁾ 墨竹의 새로운 경지를 연 蘇軾과 文同을 끌어들이 신잠의 솜씨를 칭찬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전고를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²⁰⁾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선택한 전고가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은 소식과 문동이 묵죽에 뛰어났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활용한 것이다. ‘胸有成竹’을 주장하며 새로운 畫風을 연 文同이 ‘墨竹大師’라 불렸으며, 從表弟인 蘇軾이 그 가르침을 입어 청출어람의 성취를 보였다는 사실만 알아도 ①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19) 申光漢, 『題尙嶺相-震-所藏靈川子-申潛-畫竹障』, 『企齋集』(총간 22) 권9, 331d면; 鄭士龍, 『爲尙左相題靈川子畫竹』, 『湖陰雜稿』(총간 25) 권4, 132c면.

20) “尙相有靈川子申潛畫竹、晴雨二障, 分請企齋、湖陰之詠. 各以八韻排律歸之(…) 其用事措意一也, 而立語骨法頓殊. 平生兩家氣像可想, 而天然峭崛, 未易甲乙也.” 李濟臣, 『清江先生鯁鱗瑣語』, 『大東野乘』 권57)

그런데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②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②의 용사가 보다 구체적인 전고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②의 出句는 蘇軾의 “나는 본디 세 번 사는 사람인데, 옛날과 (지금) 별 차이 없다네. 前生에 혹 草聖이었는데, (지금도) 習氣가 뱀을 놀래기 충분하네”²¹⁾라는 詩句에서 유래하였다. ‘習氣’는 用筆과 結體가 물 흐르듯 익숙한 것을 가리키는 書法 용어이고 ‘驚蛇’는 뛰어난 草書 실력을 가리킨다.²²⁾ 소식의 詩句를 이용하여 신잠의 그림 솜씨가 매우 뛰어난을 칭송한 것이다.

②의 對句는 소식과 문동 사이의 逸話를 이용하였다. 墨竹을 그려달라며 비단을 들고 찾아오는 이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자, 이를 귀찮게 여긴 문동은 소식을 찾아가면 그림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내었다. 그리고는 비단 한 필씩 들고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만 척 길이의 대나무를 그려주라는 시를 지어 소식에게 보냈다. 이에 소식은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려면 2백 5십 필의 비단이 필요하니, 모자라는 만큼의 비단을 보내달라는 농담으로 답신을 보냈다. 머쓱해진 문동은 만 척 길이의 대나무가 어디 있느냐며 그냥 해본 소리라고 해명하였다. 이에 소식은 세상에 천 길의 대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그림자는 얼마나 길겠냐는 시를 지어 보냈다. ‘千尋’은 ‘十萬尺’에 해당하므로, 2천 5백 필의 비단이 필요한 대나무 그림도 가능하다는 농담이다. 소식의 달변에 백기를 든 문동은 2백 5십 필의 비단은 노후자금으로 써야 한다고 답하고는 대신 簞籥谷의 偃竹을 그려 보냈다. 그러면서 이 대나무는 몇 척밖에 안 되나 만 척의 기세가 있다고 하였다.²³⁾ 키 작은 대나무에 만 척의 기세를 불어넣었던 문동을 거꾸러뜨릴 정도로 신잠의

21) “我本三生人，疇昔一念差。前生或草聖，習氣餘驚蛇。”(蘇軾，「次韻致政張朝奉仍招晚飲」，『蘇軾詩集』(第六冊) 권34，中華書局，1982，1830~1831면)

22) “(亞棲)自謂：‘吾書不大不小，得其中道；若飛鳥出林，驚蛇入草。’”(『宣和書譜·草書七』) 字體는 새가 숲 밖으로 飛翔하는 것처럼 飄逸해야 하고 筆勢는 뱀이 놀라 풀 속에 숨는 것처럼 適勁해야 한다는 뜻이다.

23) “與可畫竹，初不自貴重，四方之人持縑素而請者，足相躡於其門。與可厭之，投諸地而罵曰：‘吾將以爲襪’。士大夫傳之以爲口實。及與可自洋州還，而余爲徐州，與可以書遺余曰：‘近語士大夫：吾墨竹一派，近在彭城，可往求之，襪材當萃於子矣。’書尾復寫一詩，其略曰：‘擬將一段懸溪絹，掃取寒梢萬尺長。予謂與可：‘竹長萬尺，當用絹二百五十四。知公倦於筆硯，願得此絹而已。’與可無以答，則曰：‘吾言妄矣。世豈有萬尺竹也哉？’余因而實之，答其詩曰：‘世間亦有千尋竹，月落庭空影許長。’與可笑曰：‘蘇子辯則辯矣。然二百五十四，吾將買田而歸老焉。’因以所畫簞籥谷偃竹遺予，曰：‘此竹數尺耳，而有萬尺之勢。’”(蘇軾，「文與可畫簞籥谷偃竹記」，『蘇軾集』 권36)

筆勢가 뛰어나다는 것이 정사룡 시의 의미이다.

해당 전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정사룡의 시를 이해할 수 없다. 정사룡은 사실이 아닌 사건을 선택한 후 출전에 보이는 말을 축약하고 재조합하였다. 산문에 가까운 구법을 활용하고 ‘移’와 ‘倒’ 같은 글자를 단련함으로써 奇拔과 新驚을 의도한 것이다.²⁴⁾ 그 결과, 일상적 어법에 충실하여 流麗하고 平易한 느낌을 주는 ①과는 사뭇 다른 미감을 만들어내었다.

새로운 의미와 표현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사룡의 용사는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창작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전고를 선택하여 의경의 긴밀성이 깨졌기 때문이다. 出句의 전고는 분명 글씨 [草書]에 대한 전고이므로 그림을 칭송해야 하는 창작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造語에 공을 들여 工對를 이루어냈으나 용사의 기본 원칙을 벗어났으므로 공교롭다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3. 意境을 고려한 造語의 적절성

한시에서의 용사는 대부분 원전의 내용을 창작 텍스트의 문맥에 맞게 변개함으로써 완성된다. 창작의 상황에 적합한 전고를 선택한 다음, 적절한 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造語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구성하는 인물·행동·배경 등을 한두 마디로 압축해야 하므로 造語의 과정에서 용사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한다.

한시 작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할 수 있지만, 과거에 없던 새로운 의미, 즉 新意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新語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造語를 시도하게 되는데, 때로는 그것이 용사라는 수사법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24) ‘移’는 원전의 ‘一念差’를, ‘倒’는 원전의 ‘僵’을 변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골 닭이 언제나 울까 귀를 기울이면서
 새벽녘 촛불 스러질 때까지 잠을 쫓았네.
 側耳荒鷄何許哭, 警眠官燭及晨殘

1541년(중종 36) 鄭士龍이 관동 지방의 奉使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오는 도중 廣陵에서 지은 시이다.²⁵⁾ 임금께 제때 보고를 올려야 한다는 마음에 뜬 눈으로 아침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정황을 묘사하였다. 정사용은 시골 마을의 닭이라는 의미로 ‘荒雞’라는 시어를 만들어내었다. ‘村雞’라는 시어를 써도 무방하지만, 對句의 ‘官燭’과 工對를 이루기 위해 ‘荒雞’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野雞’라는 시어도 좋지만 평측이 맞지 않아 쓸 수가 없다. 對句에 용사가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보더라도 ‘荒雞’라는 시어가 용사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造語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荒雞’는三更 이전에 우는 닭으로, 그 소리가 惡聲이어서 不祥하다고 여겼다. 또한 혼란을 기회 삼아 큰 공을 세우려 한 祖逖의 전고²⁶⁾를 연상시킨다. 작자의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군왕의 정치가 바르지 못해 세상이 어지럽다는 뜻이 되어 官人이 쓸 수 없는 不敬한 말이 되는 것이다.²⁷⁾

정사용의 시는 ‘용사’라는 작시의 원리 때문에 ‘참신한 의경의 제조’라는 의도가 인정받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한시라는 문학 갈래는 항상 과거의 전범을 의식해야 하는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용사를 할 경우에도 ‘전고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함’이 ‘의경에

25) “將期致命朝金闕, 怵惕通宵枕未安. 側耳荒鷄何許哭, 警眠官燭及晨殘. 青門車馬行穿闕, 紫陌塵埃試拂冠. 歸檢詩囊添『瓦注』, 神交翰輿謹齋看.”(鄭士龍, 『廣陵早發』, 『湖陰雜稿』(종간 25) 권3, 100a면)

26) “(祖逖)與司空劉琨俱爲司州主簿, 情好綢繆, 共被同寢. 中夜聞荒雞鳴, 蹴琨覺曰: ‘此非惡聲也.’ 因起舞. 逖、琨並有英氣, 每語世事, 或中宵起坐, 相謂曰: ‘若四海鼎沸, 豪傑並起, 吾與足下當相避于中原耳.’”(『晉書·祖逖傳』 권62)

27) “湖陰公, 嘗奉使關東, 到處作詩, 有『關東日錄』. 後余侍公, 讀錄中, 『廣陵早發』詩有『側耳荒雞何處哭, 警眠官燭及晨殘』之句. 余曰: ‘荒雞是何雞?’ 公曰: ‘謂荒村之雞也.’ 余曰: ‘陰陽書謂: “夜半雞爲荒雞, 鳴, 天下大亂.” 昔, 祖逖中夜聞雞聲, 蹴劉琨覺曰: “此非惡聲也.” 蓋夜半雞, 本惡聲, 而謂之非惡聲者, 天下既亂, 則“吾兩人, 可建功業”云爾.’ 公曰: ‘是矣.’ 卽令寫手改‘荒’作‘村’. 近, 公之二子, 印公集, 仍作‘荒’字, 無乃據未改本而印之耶?”(魚叔權, 『稗官雜記』, 『詩話叢林』, 95~96면)

맞게 말을 만들’보다 훨씬 중요한 원칙이 된다. 공교로운 표현을 의도하여 시어를 다듬더라도 전고의 본래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洛陽이 司馬를 얻은 바로 그날에
蜀 땅은 臥龍의 喪을 당했었지.
洛下正逢司馬日, 蜀中新喪臥龍時.

洪履祥(1549~1615)이 李珣(1536~1584)의 죽음을 애도하여 지은 시이다.²⁸⁾ 出句는 魏의 수도였던 洛陽과 삼국통일의 일등공신인 司馬懿의 고사를 활용한 표현이다. 對句는 李珣의 經世之才를 제갈량에 견주어 그 죽음을 슬퍼한 구절인데, 원래는 ‘孔明’이었던 것이 ‘臥龍’으로 바뀌어 『箕雅』에 수록되었다. ‘司馬’와의 정교한 對偶를 위해 글자의 變改가 이루어진 것이다.²⁹⁾

그런데 洪萬宗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出仕 이전의 제갈량을 일컫는 ‘臥龍’은 관서를 지낸 李珣를 표현하기에는 부적절한 造語가 된다.³⁰⁾ 공교로운 對偶를 위해 실상과 어그러진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고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을 지니므로 이처럼 용사를 위한 造語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술자리에 또한 ‘絲竹肉’까지 겸하였으니
인간 세상에서 어찌 ‘鶴錢州’를 부러워할쏘나?
席上又兼絲竹肉, 人間何羨鶴錢州?

28) “斯文宗匠國蒼龜, 一代聲名走卒知. 洛下正逢司馬日, 蜀中新喪臥龍時. 青襟不耐摧樑痛, 丹辰偏深失鑑悲. 何意挺生何意奪, 蒼天漠漠問憑誰?”(洪履祥, 『栗谷挽』, 『箕雅』 권9, 580면)

29) 李珣의 문집에도 ‘臥龍’으로 되어 있다. 『栗谷全書』(총간 45) 권37, 416c면 참조.

30) “南臺谷龍翼所選『箕雅』, 載余族曾祖慕堂『挽栗谷』詩七言律, 而其頷聯曰(…)改孔明二字, 爲臥龍, 豈臺谷誤聞而然耶? 司馬、臥龍爲巧對, 故抑以其私見改之耶? 不聞於其子孫, 而改下則謬矣. 慕堂亦豈不知司馬、臥龍之爲巧對? 而乃曰孔明者, 非但取其響韻. 臥龍則隱時之稱, 旣爲漢相以後, 不當用此號也. 余堂叔泛翁亦常曰: ‘麗語云: “孔明不死, 雖復漢而何難? 召虎再生, 此與周之有望.” 龍虎之對, 不爲不巧, 而麗中以爲不對, 王父不曰臥龍而曰孔明, 亦用此也.’ 此豈非明證乎!”(洪萬宗, 『詩話叢林·證正』, 276~277면)

벼슬에서 물러난 뒤의 유유자적한 회포를 읊은 洪萬宗의 작품이다. 出句의 ‘絲竹肉’은 현악기, 관악기, 목소리를 일컫는다. 對句는 잘 알려진 ‘跨鶴揚州’의 고사³¹⁾를 이용한 것이다. 허리에 큰돈을 차고 학에 올라타 揚州를 구경하는 것보다 歌樂을 곁들인 지금의 酒宴이 더 흥겹다는 뜻이다.

任堃은 ‘絲竹肉’과 ‘鶴錢州’라는 對偶가古今에 새로운 것이라고 극찬했는데,³²⁾ ‘跨鶴揚州’의 고사는 ‘鶴錢州’든 ‘州錢鶴’이든 어떤 식으로 造語해도 본래의 의미가 크게 손상되지 않는다.³³⁾ 실제로 李穡이 이미 ‘鶴州錢’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어 칭송을 받은 바 있다.³⁴⁾

반면에 ‘絲竹肉’은 다른 형태의 造語가 어렵다. 현악기는 관악기만 못하고 관악기는 사람의 목소리만 못하다는 것이 전고의 본래 의미이다.³⁵⁾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자신을 위해 악기를 연주해주시니 즐거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직접 노래까지 불러주시니 ‘跨鶴揚州’도 부럽지 않다는 것이 흥만중 시의 본의이다. 우열의 순서를 뒤섞어놓은 ‘竹肉絲’나 ‘肉竹絲’ 등의 造語로는 이러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다.³⁶⁾

이처럼 전고의 본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造語와 對偶에 제약이 뒤따른다. 용사를 하면서 새롭게 조어를 하는 경우에는 전고가 지닌 원래의 의미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이용해야 한다. 이른바 ‘翻案’이나 ‘反意’처럼 전고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를 새로운 조어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31) “有客相從，各言所志，或願爲揚州刺史，或願多貨財，或願騎鶴上升。其一人曰：‘腰纏十萬貫，騎鶴上揚州。’欲兼三者。”(南朝 梁 殷芸, 『小說·吳蜀人』)

32) “絲竹肉、鶴錢州，對偶精奇，此乃古今詩人所未發者。”(任堃, 『水村漫錄』, 『詩話叢林』, 254면)

33) “人心自古鶴州錢，得望蜀雙眼穿。”(李穡, 『近來達官以事敗者多矣。病餘獨坐，聊述蚪蚪吟』, 『牧隱詩藁』(총간 4) 권18, 222b-c면); “世上難兼鶴錢州，此亭形勝解人愁。”(李孟昉, 『次鐵原聚錢州』, 『東文選』 권17); “何須更覓錢州鶴? 左手持螯右手杯。”(徐居正, 『喜人送酒蟹』, 『四佳詩集』(총간 10) 권5, 311c면); “縱然愛說州錢鶴，從古何人此得兼?”(李南珪, 『小梅』, 『修堂遺集』(총간 349) 책1, 314b면)

34) “牧老又云：‘人心自古鶴州錢。’以‘腰纏十萬貫，騎鶴上揚州’，作三字，語新。”(曹仲, 『謏聞瑣錄』, 『詩話叢林』, 50면)

35) “嘉好酣飲，愈多不亂。溫問嘉：‘酒有何好而卿嗜之?’ 嘉曰：‘公未得酒中趣耳。’又問：‘聽妓，絲不如竹，竹不如肉，何謂也?’ 嘉答曰：‘漸近使之然。’一坐咨嗟。”(『晉書·孟嘉傳』 권98) 현악기는 손, 관악기는 입, 노래는 목을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바, 몸과 가까울수록 소리가 더 좋다는 뜻이다.

36) “一絲竹肉哀如玉，不枉罇前送百年。”(申緯, 『薄船題余小樂府後三絕句皆佳，卽次原韻亦三首』(3수 중 2수), 『警修堂全藁』(총간 291) 冊19, 413a면)

이 경우에는 전고의 원래 의미를 함축하면서도 이와 구별되는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었는가 용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① 그때의 江神이 나도 알아줄는지,
언제쯤이나 다시 ‘半帆風’을 빌려주려나?
當日江神知我否, 何時更借半帆風?³⁷⁾

② 나에게 江南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 있으니
江神이 기꺼이 ‘半帆風’을 빌려주겠지.
我有江南無限思, 江神肯借半帆風.³⁸⁾

「滕王閣圖」를 보고 지은 題畫詩인데 ①은 李穡, ②는 徐居正의 작품이다. 당연히 王勃의 전고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작품의 기구와 승구는 「滕王閣序」에 보이는 표현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어서 용사라기 보다는 표절에 가깝다.

그런데 ①과 ② 모두 전구와 결구에 이르러 왕발이 순식간에 수백 리를 갈 수 있도록 江神이 돛에 가득한 바람[一帆風]을 불어주었다는 고사³⁹⁾를 변용하였다. ‘一帆風’이라는 원래의 표현을 ‘半帆風’으로 바꾸어 새로운 뜻을 시도한 것이다. ‘半帆風’이라는 시어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의미는 서로 다르다.

①은 왕발이 「滕王閣序」로 글재주를 과시한 전고를 염두에 둔 것이다. 만약 江神이 이색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다면, 왕발을 도와준 것처럼 자신 또한 도와줄 것이라는 뜻이다. ‘一帆風’을 ‘半帆風’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재주가 왕발의 절반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는 자부심을 담아낸 것이다.

한편 ②에 보이는 ‘半帆風’은 천천히 배를 몰기에 좋은 바람을 가리킨다.

37) “落霞孤鶩水浮空, 畫棟珠簾雲雨中. 當日江神知我否, 何時更借半帆風?”(李穡, 「奉謝廣平李侍中所藏山水十二疊屏風—滕王閣」, 『牧隱詩藁』(총간 4) 권28, 402b면)

38) “地靈人傑古今同, 畫棟珠簾杏靄中. 我有江南無限思, 江神肯借半帆風.”(徐居正, 「題滕王閣圖」, 『四佳詩集』(총간 10) 권13, 405d면)

39) “王勃父福時遷交趾令. 勃年十三, 往省之, 阻風, 泊舟馬當山下, 去南昌七百里. 夢見水府元君曰: ‘當助清風一帆.’ 味爽遂抵南昌.”(明 蔣一葵, 『堯山堂外紀』 권22)

江神이 ‘半帆風’을 빌려주면 천천히 배를 몰며 강남의 좋은 경치를 남김없이 구경하겠다는 뜻이다. 이색과 동일한 시어를 이용하였으나 轉句의 의경에 변화를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것이다.⁴⁰⁾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용사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기준은 ‘적절한 전고의 선택’과 ‘의경에 합당한 造語’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전고의 본래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의경의 논리성과 대우의 공교로움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상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용사의 ‘第一法門’이라는 평가를 받은 예이다.⁴¹⁾

周亞夫의 쇠북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韓信의 깃발은 물을 등진 채 늘어섰네.
亞夫金鼓從天落, 韓信旌旗背水陳.

宋 梅詢이 지은 「送夏子喬招討西夏」의 頸聯인데, 용사에 뛰어난 館閣詩의 典型을 보여주면서도 억지로 造語한 흔적이 없기에 돌에 새길 정도로 高評을 받았다.⁴²⁾ 西夏는 처음에 宋의 제후국이었으나 새로 登位한 元昊가 자립을 선언한 뒤로 송나라와 대립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宋 仁宗이 夏 竦을 보내 長安을 지키게 하였는데, 이때 梅詢이 하송을 전송하며 이 시를 지었다. 출정하는 이를 전송하는 시이므로 상대방의 威武를 칭송해야 한다는 주제가 강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매순은 周亞夫와 韓信의 고사를 가져와 의경을 제작하였다.

먼저, 주아부와 한신의 전고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자. 絳侯 周勃의 둘째아들인 주아부는 細柳營의 고사로 유명한 西漢의 장군이다.⁴³⁾ 흉노가

40) 자세한 내용은 줄고, 「한국 제화시의 특징과 전개」, 『東方漢文學』 제33집, 東方漢文學會, 2007, 280~281면 참조.

41) “宋人用事, 雖種種魔說, 然中有絕工者. 如梅昌言(…) 冠裳偉麗, 字字天然, 此用事第一法門也.”(明 胡應麟, 『詩藪·宋』) 冠裳은 예의와 법도에 맞게 차려입은 官服을 의미하며 法門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는 門, 곧 부처의 教法을 가리킨다.

42) “景祐末, 元昊叛, 夏鄭公出鎮長安. 梅<送詩>曰(…) 時獨刻公詩於石.”(宋 劉頌, 『中山詩話』)

43) “文帝之後六年, 匈奴大入邊. 乃以宗正劉禮爲將軍, 軍霸上; 祝茲侯徐厲爲將軍, 軍棘門; 以河

북변을 침입하자 漢 文帝는 수도인 長安 주위에 군대를 주둔시켜 침입에 대비하였는데, 주아부가 주둔한 세류는 장안의 서쪽에 있는 요충지였다. 그런데 하송이 出陳하러 떠난 곳도 장안이였다. 또한 반란을 일으킨 서하는 한나라 시절 흉노의 땅이었다. 따라서 귀의와 반란을 반복했던 북방의 외적을 방비한다는 점 또한 주아부와 하송의 공통점이 된다.

한편, ‘金鼓從天落’이라는 표현은 주아부가 吳楚의 반란을 물리친 고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漢書·周亞父列傳』에는 북을 울리며 급습하면 깜짝 놀란 제후들이 주아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착각할 것이라는 대목이 있다.⁴⁴⁾ 하송이 주아부와 같은 奇策을 써서 서하의 반란을 잠재울 것이라는 뜻이다.

對句는 韓信의 배수진 고사⁴⁵⁾를 이용하였는데, 한신이 물리친 나라가 ‘趙’라는 사실⁴⁶⁾이 곧 창작의 상황과 유사하다. 唐구트(黨項)족 출신인 원호는 그 조상이 唐에 귀의하였으므로 원래는 李氏였다. 그러다가 부친인 李德明이 宋에 귀의한 뒤로 趙姓을 하사받았다. 처음에는 宋에 귀의하였다가

內守亞夫爲將軍，軍細柳，以備胡。上自勞軍，至霸上及棘門軍，直馳入，將以下騎送迎。已而之細柳軍，軍士吏被甲，銳兵刃，彀弓弩，持滿。天子先驅至，不得入。先驅曰：‘天子且至！’軍門都尉曰：‘將軍令曰“軍中聞將軍令，不聞天子之詔。”’居無何，上至，又不得入。於是上乃使使持節詔將軍：‘吾欲入勞軍。’亞夫乃傳言開壁門。壁門士吏謂從屬車騎曰：‘將軍約，軍中不得驅馳。’於是天子乃按轡徐行。至營，將軍亞夫持兵揖曰：‘介冑之士不拜，請以軍禮見。’天子爲動，改容式車，使人稱謝：‘皇帝敬勞將軍。’成禮而去。既出軍門，群臣皆驚。文帝曰：‘嗟乎，此真將軍矣！曩者霸上、棘門軍，若兒戲耳，其將固可襲而虜也。至於亞夫，可得而犯邪？’稱善者久之。月餘，三軍皆罷。乃拜亞夫爲中尉。(『史記·絳侯周勃世家』 권57)

44) “趙涉遮說亞夫曰：‘將軍東誅吳、楚，勝則宗廟安，不勝則天下危，能用臣之言乎？’亞夫下車，禮而問之。涉曰：‘吳王素富，懷輯死士久矣。此知將軍且行，必置問人於轂、駟阬之間。且兵事上神密，將軍何不從此右去，走藍田，出武關，抵雒陽？問不過差一二日，直入武庫，擊鳴鼓，諸侯聞之，以爲將軍從天而下也。’太尉如其計。”(『漢書·周亞父列傳』 권40)

45) 군사 수가 적었던 한신은 趙軍에게 싸움을 건 뒤 패한 척 도망하였다. 趙軍이 추격하자 한신은 배수진을 치고 水軍과 연합하여 趙軍과 맞섰다. 그 사이 한신은 2천의 군사로 하여금 趙軍의 진영에 잠입하여 한나라 깃발을 꽂게 하였다. 배수진을 뚫지 못해 회군한 趙軍은 한나라 깃발을 보고는 본영이 함락된 것으로 착각하여 烏왕좌왕하다가 大敗하였다. 『史記·淮陰侯列傳』 권92 참조.

46) 項羽가 張耳의 공을 인정하여 趙王으로 삼았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陳餘가 장이를 내쫓고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劉邦이 楚를 공격할 때 진여에게 연합을 요청했는데, 진여는 유방에게 귀의한 장이의 목을 보내면 그리겠다고 약속하였다. 유방은 장이와 닮은 사람을 대신 참수하여 진여를 속였고 나중에 이를 알아챈 진여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에 한신이 출격하여 趙軍을 물리치고 진여를 죽였다. 『史記·張耳陳餘列傳』 권89 참조.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원호의 행적이 趙의 陳餘와 비슷하므로, 진여를 물리친 한신의 고사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造語의 수준도 뛰어나다. 對句는 출전에 보이는 말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지만, 出句의 ‘金鼓’⁴⁷⁾는 출전에 보이는 ‘鳴鼓’를 새롭게 造語한 것이다. 『孫子·軍爭』을 보면 ‘金鼓’가 ‘旌旗’와 함께 장군의 호령을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짝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⁸⁾ 글자 하나를 바꿈으로써 對偶도 더욱 공교로워지고 한꺼번에 두 개의 전고를 용사하는 효과까지 거둔 셈이 되는 것이다.

4. 該博의 과시와 難澁의 병폐

용사의 가장 큰 장점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용사에 활용되는 전고 대부분이 역사적 교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詩를 敎化의 도구로 여기는 입장에서는 용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하였다.⁴⁹⁾

용사는 과거의 표현을 재활용함으로써 作詩에 큰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도 한다. 용사가 많은 시를 읽으면 수수께끼를 푸는 것과 같은 재미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짝막한 어구 속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아냄으로써 지식의 확대에 기여하기도 한다. 링크로 연결된 하이퍼텍스트를 읽는 것과 같은 이러한 효과를 ‘該博’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고의 상황과 창작의 상황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는 만큼, 용사만으로 作詩의 의도를 온전히 전달할 수는 없다. 게다가 용사가 많은

47) ‘金鼓’는 곡조의 節奏에 쓰이는 네 가지 금속 악기와 여섯 가지 북을 가리키는데, 軍旅에도 쓰였다. 『周禮·地官·鼓人』 참조.

48) “『軍政』曰: ‘言不相聞, 故爲鼓鐸; 視不相見, 故爲旌旗.’ 夫金鼓、旌旗者, 所以一民之耳目也. 民既專一, 則勇者不得獨進, 怯者不得獨退, 此用衆之法也. 故夜戰多火鼓, 晝戰多旌旗, 所以變民之耳目也.”(『孫子·軍爭』)

49) “然全不用事, 吟風詠月, 譚棋說酒, 苟能押韻者, 此三家村裏村夫子之詩也. 此後所作, 須以用事爲主.”(丁若鏞, 『寄淵兄一戊辰冬』, 『與猶堂全書』(총간 281) 제1집 21권, 453b면)

시는 해석이 순탄하지 않아 유려한 느낌을 주지 못한다.⁵⁰⁾ 논리적 연관성이 부족한 용사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難澁’이라는 병폐에 빠질 위험이 커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용사를 어느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은 용사를 多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쓸데없는 군더더기를 양산하거나 거리낌 없이 표절을 일삼는 폐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⁵¹⁾ 출처를 알기 어려운 險僻한 전고를 쓰거나 의경이 잘 연결되지 않는데도 매구에 용사를 하는 시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李商隱, 西崑體, 江西詩派 등을 비판하거나 宋詩를 唐詩보다 낮추어 볼 때에 이러한 논리가 동원되었다.

용사를 얼마만큼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결국 ‘해박’과 ‘난삽’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명한 예는 錢鏐에게서 성성이 털로 만든 붓을 선물 받은 黃庭堅이 감사의 뜻으로 지은 시이다.⁵²⁾ 이 시는 매구에 용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법이 ‘精妙明密’하여 이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⁵³⁾

성성이 털로 만든 붓에 대해 錢穆父가 읊은 시에 화답하다

술을 좋아하여 꿈꾸듯 취하니,
말은 할 줄 알지만 앞일에는 어둡구나.
평생토록 몇 켤레나 신발을 모았는가?

50) “用事過多, 屬辭不得流便.”(『南史·任昉傳』)

51) “凡詩, 不能不使故事. 然忌堆積, 堆積便贅矣.”(明 江進之, 『雪濤小書·詩忌』); “唐人作詩, 專主意興, 故用事不多; 宋人作詩, 專尚用事, 而意興則少. 至於蘇、黃, 又多用佛語, 務爲新奇, 未知於詩格如何. 近世此弊益甚, 一篇之中, 用事過半, 與剽竊古人句語者, 相去無幾矣.”(李晔光, 『芝峯類說·文章部二 詩』 권9)

52) “錢穆父奉使高麗, 得猩猩筆, 甚珍之. 嘗以分贈山谷.”(宋 葛立方, 『韻語陽秋』 권17) 우리나라에는 성성이 없으므로 여기에서의 성성모필은 아마도 죽제비 털로 만든 狼尾筆(黃毛筆, 黃鼠筆이라고도 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高麗筆, 蘆管黃毫, 健而易乏, 舊云猩猩毛. 或言: ‘是物四足長尾, 善緣木.’ 蓋猯毛或鼠鬚之類耳.”(宋 佚名氏, 『雞林志』)

53) “凡作詩若正爾填實, 謂之點鬼簿, 亦謂之堆塚死屍. 能如『猩猩毛筆』詩曰‘平生幾兩屐? 身後五車書’、又如‘管城子無食肉相, 孔方兄有絕交書’, 精妙明密, 不可加矣, 當以此語反三隅也.”(宋 許顥, 『彥周詩話』)

죽은 뒤에 다섯 수레만큼의 책을 남겨 놓았네.
 (너를) 찾으려면 王會에 가야하고
 (너의) 공훈은 石渠에 남아 있네.
 털을 뽑아 세상을 구할 수 있으니
 진정 楊朱에게 한 마디 해야겠네.
 愛酒醉魂在, 能言機事疏.
 平生幾兩屐? 身後五車書.
 物色看王會, 勳勞在石渠.
 拔毛能濟世, 端爲謝楊朱.⁵⁴⁾

首聯은 붓을 만들기 위해 성성이를 포획하는 방법과 연관된다.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정도로 영험하기 때문에⁵⁵⁾ 평범한 수단으로는 성성이를 잡을 수가 없다. 성성이는 술과 신발을 좋아하므로, 먼저 술상을 차리고 그 주위에 신발 여러 켤레를 서로 묶어 놓는다. 술에 취한 성성이가 경계심을 풀고 신발을 신으면 이때 달려 나가 잡는다. 신발이 서로 묶여 있으므로 성성이는 제대로 도망을 칠 수가 없게 된다.⁵⁶⁾

‘機事疏’는 술상과 신발이 덧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탐닉하여 위험을 자초하는 성성이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해를 당한다는 전고가 함께 이용되었다.⁵⁷⁾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는 하지만 알일은 해아리지 못하므로, 아무리 영험하다 해도 성성이가 사람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는 없다는 뜻이다.

54) 黃庭堅, 「和答錢穆父詠猩猩毛筆」, 『山谷詩集』(上) 권3, 上海古籍出版社, 2003, 80면.
 55) “鸚鵡能言, 不離飛鳥; 猩猩能言, 不離禽獸. 今人而無禮, 雖能言, 不亦禽獸之心乎?”(『禮記·曲禮上』)
 56) “阮研曾使封溪, 見邑人說: 猩猩好酒及履, 里人置之山谷常行路. 百數爲群, 見酒物等, 知人設張取之. 此獸甚靈, 先知其人祖父姓名而謂曰: ‘奴欲殺我, 捨爾去也.’ 既去復還, 因相呼曰: ‘試共嘗酒.’ 及飲, 乃甘其味. 逮乎醉, 皆擒之, 無遺逸. 遂置檻中, 隨其所欲飼之. 將烹, 索其肥者, 乃自推擇, 泣而遺之.”(『通典·邊防三·南蠻上·哀牢』 권187); “猩猩, 好酒與履. 人有取者, 置二物以誘之. 猩猩始現, 必大罵曰: ‘我也!’ 乃絕遠去. 久復, 稍稍相勸, 俄頃俱醉. 其足皆絆於履, 因遂獲之.”(唐 李肇, 『唐國史補』 卷下)
 57) “亂之所生也, 則言語以爲階. 君不密則失臣, 臣不密則失身, 幾事不密則害成. 是以君子慎密而不出也.”(『易·繫辭上』)

頷聯은 신발을 좋아하는 성성의 습성을 읊은 것인데, 여기에도 阮孚의 고사가 결합되어 있다. 완부는 金貂를 술과 바꾸어 먹었다가 탄핵을 당할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나막신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⁵⁸⁾ 성성과 완부 사이에 술과 신발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기에 두 가지 전고를 동시에 이용한 것이다.

한편, 완부는 장차 천하가 어지러울 것이라 예견하였는데, 그의 사후 蘇峻이 반역을 일으키자 識者들이 완부를 ‘知幾’라고 여겼다.⁵⁹⁾ 따라서 首聯의 ‘機事疏’라는 표현은 완부의 총명함과 성성의 어리석음을 대비시킨 구절이 된다. 이처럼 성성과 완부의 전고를 중횡으로 엮어놓은 데서 황정견의 박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身後五車書’는 죽어서 붓이 된 성성이가 엄청난 양의 책을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뜻으로, 惠施의 전고를 이용한 것이다.⁶⁰⁾ 그런데 ‘身後’라는 표현에 首聯의 ‘愛酒醉魂在’를 결합하면 죽은 뒤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술 한 잔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한 張翰의 고사⁶¹⁾가 연상된다. 죽음을 무릅쓸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다는 점에서 성성과 張翰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구절 역시 두 가지의 전고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셈이다.

頸聯의 ‘物色看王會’는 성성모필이 중국에 들어오게 된 경위를 밝힌 구절로서, 성성모필을 보려면 王會에 참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周 武王이 천하를 통일하자 사방의 諸侯, 夷族, 藩屬들이 조공을 바치며 朝會하였는데, 이때의 일을 기록한 것이 『逸周書·王會』이다.⁶²⁾ 성성모필은 전협이 高麗에 사신으로 다녀오면서 구해온 것이므로, 동쪽 제후국의 조공품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58) “初, 祖約性好財, 孚性好屐, 同是累而未判其得失. 有詣約, 見正料財物, 客至, 屏當不盡, 餘兩小簾, 以著背後, 傾身障之, 意未能平. 或有詣阮, 正見自蠟屐, 因自嘆曰: ‘未知一生當著幾量屐!’ 神色甚閑暢. 於是勝負始分.”(『晉書·阮孚傳』 권49)

59) “孚謂所親曰: ‘今江東雖累世, 而年數實淺. 主幼時艱, 運終百六, 而庾亮年少, 德信未孚. 以吾觀之, 將兆亂矣.’ (….) 尋而蘇峻作逆, 識者以爲知幾.”(『晉書·阮孚傳』 권49)

60) “惠施多方, 其書五車, 其道舛駁, 其言也不中.”(『莊子·天下』)

61) “翰任心自適, 不求當世. 或謂之曰: ‘卿乃可縱適一時, 獨不爲身後名邪?’ 答曰: ‘使我有身後名, 不如即時一杯酒.’ 時人貴其曠達.”(『晉書·張翰傳』 권92)

62) 『逸周書·王會』(권7)의 “成周之會, 堋上張赤帶陰羽, 天子南面立, 統無繁露, 朝服八十物, 摺珽”에 대하여 孔晁가 “王城既成, 大會諸侯及四夷也.”라注하였다.

‘勳勞在石渠’는 성성모필로 쓴 책들이 도서관에 가득하다는 뜻이다. 石渠閣은 長安 未央宮 북쪽에 있었던 西漢의 황실도서관이었다.⁶³⁾ 국가의 기반이 되는 훌륭한 典籍을 만드는 데 성성모필이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뜻이다.

尾聯은 ‘터럭’이라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楊朱의 고사를 쓴 것이다. 楊朱는 털 하나로는 세상을 구제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몸에서 털 하나라도 뽑지 않겠다고 한 인물이다.⁶⁴⁾ 그런데 성성이의 털을 뽑아 만든 毛筆이 위대한 문명을 건설했으니, 양주의 식견이 얼마나 鄙陋한지를 쉽사리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양주에게 알려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뜻이다.⁶⁵⁾

황정견의 「성성모필」시를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번잡한 해석을 거쳐야 한다. 성성이, 붓, 고려, 털 등 창작 상황의 구성 요소와 연관되는 전고를 두루 활용함으로써 어느 한 구절도 쉽사리 해석되지 않는다. 박식함과 정교함을 두루 갖추었다는 점에서 용사의 활용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는 의경의 연결이 긴밀하지 못하다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앞의 4구는 모두 ‘성성모필’의 특징과 연관되는 전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였으나 뒤의 4구는 ‘성성모필’이 아닌 붓 일반의 특징을 용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석 없이 번역문만으로는 도통 의미가 이해되지 않으므로, 용사를 했다는 흔적을 감추려는 노력도 부족하다.

이처럼 용사를 했음이 분명해 보이지만 어떠한 전고를 선택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나 의경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에 ‘難澁’이라는 병폐가 발생한다. ‘난삽’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창작 상황과 유사한 전고들을 일관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용사의 흔적을 감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매구마다 용사를 하여 해박을 과시하면서도 난삽에 빠지지 않은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63) “石渠閣，蓋何造。其下礪石爲渠以導水，若今御溝，因爲閣名。所藏入關所得秦之圖籍。至於成童，又於此藏秘書焉。”(『三輔黃圖·閣』)

64) “楊子取爲我，拔一毛而利天下，不爲也。”(『孟子·盡心上』)；“禽子問楊朱曰：‘去子體之一毛以濟一世，汝爲之乎？’楊子曰：‘世固非一毛之所濟。’”(『列子·楊朱』)

65) 한국고전번역원의 『海東繹史·藝文志』(권51)에서는 “바르게도 양주 되길 사양했구나”라 번역하였다.

함께 온 중이 개울을 건너다가 말에서 떨어져 신발 한 쪽을 잃었기에 장난
삼아 짓다

산골짜기 개울이 바다로 흘러드는데
말이 누워서 용이 되려고 하네.
갑자기 손에서 지팡이를 떨어뜨리더니
흙뻑 젖은 가사에 봄 구름이 질구나.
늙은 중이 갈대 꺾은 것은 장난에 불과하니,
지팡이 날린 스님 정도 되어야 신통하다 일컫지.
짐짓 묻노니, 신발 한 쪽은 어디에 있을까?
분명 蔥嶺의 동쪽에 있지는 않을 걸세.
굳이 石頭한테 가는 길을 밟을 필요 없나니,
西江을 한 입에 들이키는 풍모가 있으니.
山溪流入海, 馬臥欲化龍
拄杖茫然忽落手, 袈裟盡濕春雲濃.
折蘆老胡亦戲劇, 飛錫羅漢稱神通.
借問隻履在何地? 定應不在蔥嶺東.
不須更踏石頭路, 自有一吸西江風.⁶⁶⁾

李穡의 該博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예인데, 용사가 ‘精切’하고 詞語가 ‘雅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⁶⁷⁾ 제목에 잘 나타나 있듯이, 개울을 건너다 말이 넘어지는 바람에 물에 빠진 중을 놀려주려고 지은 시이다. 개울, 중, 말, 지팡이, 신발 등 창작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진고를 매구마다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한 솜씨도 매우 뛰어나다.

번역만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해석이 매끄럽지 않은 곳은 모두 용사가 사용된 곳이다. 말이 누워서 용이 되려고 한다는 구절은 龍馬가 黃河에서

66) 李穡, 『同來僧, 渡溪墜馬失隻履, 戲作』, 『牧隱詩藁』(총간 3) 권2, 528a-b면.

67) “用事精切, 詞語雅健. 但恐僧之騎馬, 不必拄杖在手, 且着袈裟如何?”(曹伸, 『謏聞瑣錄』, 『詩話叢林』, 49면)

八卦圖를 엮고 나온 전설을 용사한 것이다.⁶⁸⁾ 개울을 건너던 말이 밭을 헐다 더 넘어진 것이 분명한데도, 물속에서 河圖를 발견하고는 이것을 등에 업고 나오려고 일부러 잠수한 것이 아니냐고 농담을 한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은 갈대를 타고 강을 건너 달마의 고사⁶⁹⁾와 지팡이를 타고 하늘을 난 隱峰의 고사⁷⁰⁾를 이용한 것이다. 지팡이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에 비하면 갈대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은 애들 장난에 불과하다. 달마 정도의 재주만 되었어도 지팡이를 배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니, 말에서 떨어져도 물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修行에 힘써 法力을 키우라는 농담을 건넨 것이다.

잃어버린 신발의 소재를 묻는 구절 또한 달마의 고사를 이용한 것이다. 入寂한 달마를 熊耳山에 장사 지낸 지 3년이 지났을 때, 西域에 사신 갔다 돌아오던 宋雲이 蔥嶺에서 달마를 만났다. 달마는 신발 한 쪽을 손에 들고는 서역으로 간다고 하였다. 이를 보고받은 황제가 사람을 시켜 달마의 棺을 열어 보게 하였는데, 시신은 없고 신발 한쪽만 남아 있었다고 한다.⁷¹⁾

蔥嶺은 서역과 중국을 가르는 경계이다. 신발이 총령의 동쪽, 즉 중국에 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잃어버린 신발 한 쪽이 서역, 즉 天竺으로 떠내려 갔다는 뜻이다. 佛道가 일어난 근본으로 돌아간 셈이니 신발 잃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의미가 된다. 신발 찾을 생각일랑 그만두라는 뜻을 농담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石頭를 찾아가는 길이 미끄럽다는 것은 스승인 馬祖가 제자인 隱峰에게 한 말이다.⁷²⁾ 어느 날, 석두를 찾아가겠다며 은봉이 마조에게 작별 인사를

68) 『書·顧命』의 “天球、河圖，在東序。”에 대하여 孔穎達이 “伏羲王天下，龍馬出河，遂則其文，畫八卦，謂之河圖。”라注하였다.

69) “達摩始來見梁武帝，帝既不契，祖師遂有洛陽之遊，祖師不欲人知其行，是夜航葦西邁。”(宋 陸庵 編，『祖庭事苑』)

70) “師[隱峰]以冬居衡岳，夏止清涼，唐元和中，薦登五臺，路出淮西，屬吳元濟阻兵違拒王命，官軍與賊交鋒，未決勝負，師曰：‘吾當去解其患。’乃擲錫空中，飛身而過，兩軍將士仰觀，事符預夢，鬪心頓息。”(宋 道原，『景德傳燈錄』 권8)；“今僧遊行，嘉稱飛錫，此因高僧隱峰遊五臺，出淮西，擲錫飛空而往也。若西天得道僧，往來多是飛錫。”(宋 道誠，『釋氏要覽』 卷下)

71) “葬熊耳山，起塔於定林寺，後三歲，魏宋雲奉使西域回，遇師於蔥嶺，見手攜只履，翩翩獨逝，雲問師何往，師曰：‘西天去。’又謂雲曰：‘汝主已厭世。’雲聞之茫然，別師東邁，既復命，即明帝已登遐矣，而孝莊即位，雲具奏其事，帝令啓墳，惟空棺一只革履存焉，舉朝爲之驚歎，奉詔取遺履，於少林寺供養。”(宋 道原，『景德傳燈錄』 권3)

올렸다. 석두는 당시 마조와 어깨를 나란히 한 高僧이었다. 은봉은 자신의 경지를 석두와 견주보고 싶었던 것이다. 마조는 은봉의 好勝之心을 꺾기 위해 “石頭路滑”이라는 방편을 내놓았다. 스승의 본의를 깨닫지 못한 은봉은 결국 석두에게 꿀탕을 먹고 돌아오고 만다. 스승의 말따나 석두를 찾아갔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西江의 물을 마셨다는 것 또한 마조와 관계된 고사이다. 龐蘊이라는居士가 마조를 찾아와 萬法과 짝이 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마조는西江의 물을 한 입에 들이마시면 그때 말해주겠다고 대답하였다.⁷³⁾ 이 말에 크게 깨달은 방온은 전 재산을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참선에 정진하였다. 이후 방온뿐만 아니라 그 부인과 딸까지도 모두 佛道를 깨우치게 되었다.西江의 물을 한입에 마시지 못한 방온조차 큰 깨달음을 얻었으니, 개울물을 잔뜩 먹은 중이야 일러 무엇 하겠냐는 뜻이다.

이색의 시에서 말이 넘어진 것은 아마도 돌에 미끄러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갑자기 물에 빠진 중은 개울물을 잔뜩 마시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묘사하면서 高僧들의 逸話を 증척시킨 숨씨가 교묘하다. 다음부터 개울을 건널 때는 반드시 미끄러운 돌을 조심하라는 충고를 담아내는 한편, 잔뜩 물 먹은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여기라는 농담을 건넨 것이다. 돌에 미끄러진 것은 ‘石頭’와, 말이 넘어진 것은 ‘馬祖’와, 신발이 서쪽으로 떠내려간 것은 ‘西江’과 연결되므로 연상의 효과도 매우 공교롭다.

이상의 구절들은 용사가 쓰였음을 쉽사리 알 수 있는 구절에 해당한다. ‘왜 갑자기 이런 시어나 의경이 등장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십중팔구 용사가 활용된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예컨대 ‘馬臥欲化龍’의 경우, 뜬금없이 ‘龍’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특정 전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색의 해박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 이 시는 매구에 걸쳐

72) “鄧隱峰辭師，師云：‘什麼處去？’對云：‘石頭去。’師云：‘石頭路滑。’對云：‘竿木隨身逢場作戲。’便去。才到石頭，即繞禪床一匝，振錫一聲，問：‘是何宗旨？’石頭云：‘蒼天蒼天。’隱峰無語，却回舉似於師。師云：‘汝更去。見他道蒼天，汝便噓噓。’隱峰又去石頭，一依前問：‘是何宗旨？’石頭乃噓噓。隱峰又無語歸來，師云：‘向汝道石頭路滑。’”(宋 道原，『景德傳燈錄』 권6)

73) “(龐蘊)後之江西，參問馬祖云：‘不與萬法爲侶者是什麼人？’祖云：‘待汝一口吸盡西江水，卽向汝道。’居士言下頓領玄要。”(宋 道原，『景德傳燈錄』 권8)

용사가 활용되었다. 첫 번째 구절인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든다”는 일견 단순하게 배경 상황을 서술한 것처럼 보인다. 중이 물에 빠진 사건을 예비하는 서술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런데 실상 이 구절은 “佛法은 바다와 같아 모든 개울을 받아들인다”⁷⁴⁾는 부처의 말씀을 연상시킨다. 이후에 사용된 전고들이 모두 佛法에 대한 깨달음과 佛道에의 귀의와 관계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팡이를 놓친 상황을 묘사한 구절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색은 이 구절에도 전고를 집어넣어 평범한 묘사 이상의 의미를 만들어내었다. 갑자기 지팡이를 놓치고 망연자실했다는 것은 蘇軾의 시에 보이는 “갑자기 河東의 獅子吼가 들리니, 지팡이를 손에서 놓친 채 망연자실하네”⁷⁵⁾라는 구절을 용사한 것이다.

소식의 시에는 禪에 관심이 많았던 陳慥라는 친구와 관련된 고사가 숨어 있다. 진조에게는 河東 출신의 柳氏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집안에 기생을 불러들여 노는 것을 싫어하였다. 진조가 소식과 더불어 술을 마시며 부인 몰래 기생을 불러 노래하고 춤추게 하였는데, 이를 알아챈 柳氏가 막대기로 창문을 두드리며 고함을 질렀다. 이에 진조가 겁을 먹고 기생을 돌려보내자 다음날 소식이 진조를 조롱하는 시를 지어 보냈던 것이다.⁷⁶⁾ 그러므로 이색의 시구는 옆에서 고함을 지를 부인도 없는 사람이 무엇에 놀라 지팡이를 떨어뜨렸냐는 조롱이 된다.

“물에 젖은 가사에 봄 구름이 질다”는 의경은 구름이 비친 맑은 개울에 빠져 옷이 다 젖었다는 뜻이지만, 한편으로 道膺의 고사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道膺이 스승인 洞山을 따라 개울을 건너는데, 洞山이 개울이 깊은지

74) “爾時佛告難陀言：‘佛法如海，容納百川。’”(『方廣大莊嚴經』)；“佛告比丘：四大河水入海，無復本名，同名爲海。四姓之子，於佛出家剃除鬚髮，著三法衣，無復本姓，但云沙門釋子。”(宋 道誠，『釋氏要覽』卷上)

75) “龍丘居士亦可憐，談空說有夜不眠。忽聞河東獅子吼，拄杖落手心茫然。”(蘇軾，『寄吳德仁兼簡陳季常』，『蘇軾詩集』 권25, 中華書局, 1982, 1340~1342면)

76) “陳慥字季常，公弼之子，居於黃州之岐亭，自稱龍丘先生，又曰方山子，好賓客，喜畜聲妓。然其妻柳氏絕凶妒，故東坡有詩云(…)河東師子，指柳氏也。”(宋 洪邁，『容齋隨筆·三筆』 권3) 원래 이 구절은 柳震靈이 친구인 陳慥를 鐵拄杖으로 棒喝한 것을 읊은 것인데, 진조와 그 부인을 조롱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王琳祥, 『解讀蘇東坡‘河東獅子吼’』, 『歷史月刊』 193, 2004, 127~132면 참조.

얕은지 물었다. 道膺이 옷이 젖지 않았다(물이 별로 깊지 않다)고 대답하자 洞山이 粗野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에 道膺이 가르침을 청하자 洞山은 옷을 말리지 말라고 대답하였다.⁷⁷⁾

小乘만 실천하는 이를 粗人이라 하고 大乘만 실천하는 이를 細人이라 하는데, 모두 過不及의 잘못이 있다. 洞山이 물의 깊이를 물어본 것은 제자의 옷이 젖었는가를 걱정해서가 아니다. 이것이 禪을 위한 질문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道膺이 질문의 의도를 매우 俗되게 해석한 것이다. 젖지도 않은 옷을 말리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人爲나 執着을 버리라는 뜻이다.

이러한 전고에 따르면, 물에 빠진 중은 결국 가르침을 입어[濕] 깨달음을 얻은[濃] 썸이 된다. 흠뻑 젖은 옷을 조금이라도 말려 보려는 중에게, 그래 봐야 별 소용없다는 농담을 건넨 것이다. 동산의 가르침을 받은 도옹이 雲居山에서 수도하여 ‘雲居道膺’으로 알려진 것을 연상시키므로, ‘春雲’이라는 시어 또한 매우 공교롭다는 느낌을 준다.

이처럼 단순한 묘사처럼 보이는 문맥 속에 용사를 숨겨놓은 점이 이색 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는 승려라는 모티프에 맞게끔 모든 전고를 佛家の 典籍에서 가져와 의경을 구성하였다. ‘말이 넘어짐→놀라서 지팡이를 놓침→균형을 잃지 않으려 애쓰다 결국 물에 빠짐→개울을 빠져 나오니 신발 한 쪽이 없어짐→물을 많이 들이마셔 괴로워함→물에 젖은 옷을 말리느라 애를 씀’으로 구성된 의경의 전개도 매끄럽다. 사건의 전말을 지켜본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의경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적절한 용사와 논리적인 의경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에 該博을 과시하면서도 難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는 20대 초반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⁷⁸⁾ 그토록 젊은 나이에 이와 같은 해박을 과시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⁷⁹⁾

77) “師[道膺]隨洞山渡水, 洞山問: ‘水深淺?’ 曰: ‘不濕.’ 洞山曰: ‘粗人.’ 曰: ‘請師道.’ 洞山曰: ‘不乾.’”(宋 道原, 『景德傳燈錄』 권17)

78) 『목은시고』는 연대순으로 편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작품의 창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다. 여운필·성범중·최재남 역주, 『역주 목은시고』 1, 月印, 2000 참조.

79) 이색 시의 해박함에 대해서는 呂運弼, 『李穡의 詩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참조.

5. 결론

한시에서의 용사는 과거의 사건·사실·지식·의견 등을 가져옴으로써 창작 텍스트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드는 수사법이다. 작가의 상황·감정·인식 등이 정당한 것임을 설득하기 위해 훌륭한 전범이라 인정되는 전고를 이용하는 것이다. 용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작 상황과 유사한 전고의 선택, 논리적인 의경에 맞는 造語, 용사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과의 유기적 연관 등이 요구된다.

용사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과거의 것을 가져다 쓰는 것이기에 표절에 가깝다거나 진부하기 십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다. 과거의 문학을 부정하고 극복해야 하는 근대 이후 문학의 시각에서 보면, 용사는 결국 남의 것을 가져다가 약간의 변용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각을 일방적으로 확대한다면, 한문학을 포함한 고전문학 대부분은 변화를 거부한 채 오래도록 정체된 상태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용사의 부정적인 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이다. 기존 작품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패러디, 기존 작품을 무작위로 모방하는 혼성 모방 등도 정당한 창작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는 마당에 용사의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것과 새롭게 응용하는 것은 철저히 구분되어야 한다. 용사의 활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려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 崔滋, 『補閑集』, 亞細亞文化社, 1972.
蘇軾, 『蘇軾詩集』, 中華書局, 1982.
南龍翼 編, 『箕雅』, 아세아문화사, 1980.
여운필·성범중·최재남 역주, 『역주 목은시고』 1, 月印, 2000.
許捲洙·尹浩鎭 교정, 『原文 詩話叢林』, 까치, 1993.
黃庭堅, 『山谷詩集注』 上, 上海古籍出版社, 2003.

2. 논저

- 구분현, 「한국 제화시의 특징과 전개」, 『東方漢文學』 제33집, 東方漢文學會, 2007, 263~302면.
_____, 「用事の 개념과 범주에 대한 재검토」,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2009, 139~169면.
김성룡, 「典範 학습과 중세의 문학교육」, 『문학교육학』 제1호, 한국문학교육학회, 1997, 255~292면.
宋載邵, 「漢詩 用事の 比喩的 機能」, 『韓國漢文學研究』 제8집, 韓國漢文學會, 1985, 291~310면.
呂運弼, 「李穡의 詩文學 研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李鍾默,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_____, 「고전시에서 用事와 點化의 미적 특질」, 『韓國詩歌研究』 제3집, 韓國詩歌學會, 1998, 323~345면.
鄭堯一, 「點化·蹈襲·換骨奪胎·點鐵成金の 概念 研究」, 『漢文教育研究』 제1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1996, 329~338면.
王琳祥, 「解讀蘇東坡河東獅子吼」, 『歷史月刊』 193, 2004, 127~132면.

A Study on Usages of Yongsa in Classical Chinese Poetry

Gu, Bon-Hyeon

"Yongsa[用事]" means a method of composition that quotes or modifies former text's event, knowledge, assertion, the method of formation, and makes them as part of the text. Some critics insisted that yongsa is not good method for composing poetry because it looks like not deferring from plagiarism.

But yongsa is one of the effective rhetorics in composing poetry. For making use of good yongsa, poets must have considered some requisites below:

Firstly, poets must have chosen authentic precedent that has appropriate elements of the situation and condition of composing, e.g. characters, events, backgrounds, materials and so on. The more similarities exist between original text and poets' own creations, the more literary values can be made.

Secundo, poets must have recombined the poetic words of source in a new way. But the recombination must not cause a distortion of the original meaning of source. Choosing appropriate authentic precedent is more important than making new coinage.

Thirdly, poets must have considered the amount of yongsa. They can have showed off their extensive knowledges by using a lot of yongsa, but also must have been careful not to break off the logical connections of poetic ideas because improper yongsa sometimes can make the text very puzzling.

Key words : Classical Chinese poetry, Yongsa[用事], Authentic precedent, Usage, Coinage

접수일자: 2010. 8. 30
심사기간: 2010. 8. 30~2010. 11. 20
게재결정: 2010. 11. 20